

「랏셀」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(十四)

저자미상

是等 如何한 方法에 依하든지 社會主義의 共和政府下에서 □ 藝術家 까닭에 自由가 保存되고—그 自由는 資本의 所有者 以外에는 存在하지 아니라는 現在의 自由보담은 □히 完全한 自由이며 또한 □히 □□한 自由이다. 그러나 多少間은 반드시 單純하지 아니한 問題가 남아있다. 一例를 舉하면 書籍의 出版과 如한 것이다. 卽 社會主義의 世界에서는 現在와 如한 私的 出版이 없을 것이다. 國家社會主義의 世界에서 國家가 唯一한 出版□이 될 것이요, 『산티키리즘』과 『일[질]드』 社會主義의 世界에서는 『書籍同□』이 모든 □賣를 □□할 것이다. 이런 狀態에 잇서스는 果然 엇더한 사람이 出版할 原□를 決定할 것인가? 이 時代에 잇서스는 現在의 檢閱制度보담 —□嚴格한 檢閱의 機會가 잇을 것은 更言할 것도 없을 것이다. 萬一 國家로써 唯一의 出版□이 된다 하면 國家社會主義에 反對하는 書籍의 出版을 拒絕할 것이니, 如此한 政治上의 困難은 □□하고라도 例하면 文學과 如한 것은 前記의 一般 美術을 論할 卍에 有害하다는 것에 一致된 名士와 共히 □□가 잇슴에 相□가 없다. 이것은 實노 重大한 難問題이다. 萬一 文學을 自由롭게 함에는 스사로 그제 對하여 適應한 文法을 發見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.

肉體的 勞働과 知的 勞働과는 一致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『코로 포트킨』은 著者 自身이 植字工이 되어 □本□其他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意見을 有하였다.

彼는 更히 進하여 書籍出版에 關한 一切의 □肉 勞働은 著者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. 그러나 이것을 可能케 함에 足할 著者가 世上에 □인이 나 될 것인가! 그리하여 이러한 일은 如何한 境遇에서던지 著者 自身の 理解하는 일을 바리고 他人이 行한다면, 보담 速히 할 일을 보담 □□케 하는 時間의 浪□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. 그러나 이것은 吾人의 當面問題에 □한 것은 아니다. 當面問題는 選擇될 原□가 如何히 하여 選擇될가 하는 것이다.